

대장동 리스크 관리·민주당 원팀 구성 최대 과제

본선 직행 9부 능선 넘어 이재명 호남 80% 이상 지지 끌어내야 대장동 의혹 본선 리스크 우려 중도층 표심 향배 가장 큰 변수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부 능선'을 넘어섰지만, 향후 '대장동 의혹' 돌파와 '민주당 원팀'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경기와 서울 순회 경선과 마지막 '3차 슈퍼위크'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55%에 육박하면서 '결선 없는 본선행'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동 의혹'이 정치적 이슈로 남아있는 만큼 향후 이 지사와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의 표심 향배 등이 주목된다. 또한, 이 지사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표심을 본선에서 어떻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 캠프 측에서는 '호남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서 안정적인 일 수 있다'는 자체분석을 내놓으면서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를 통해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일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경우 민주당 안팎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원팀'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의 대권가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대장동 의혹이 꼽히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얻었지만, 본선 무대에서 캐스팅보트 격인 중도층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중도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의 불길기 어디까지 번질지 가능성이 힘든 가운데 그 향배에 따라 자칫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이 '본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지사 측은 특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향후 선거운동 과정의 악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순회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지사는 9월 5주차 조사에서 27.6%를 기록했다. 지난 7월 2주차 26.4%를 기록한 직후 줄곧 20% 중후반대에 머무는 흐름이다.

반면, 광주·전남·북 지역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호남 대전'이 이 지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다른 지역의 경선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의 득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본선에서도 충분히 대장동 의혹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향후 중도층의 표심 향배가 변수로 꼽힌다.

이 지사가 향후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경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공격을 주고 받은 후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 원팀' 구성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에서는 "본선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표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고 받았기에 당의 전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이 지사로서는 본선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선 이 지사에 대한 반발 분위기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정치력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선거 캠프의 주요 직책 등을 일부러 상당수 비워두고 당 경선을 치른 만큼, 빠르게 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호남 깨안기도 남겨진 과제다. 이번 호남대선에서 이 지사가 승리는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사의 '호남 행보'를 통한 호남 민심 보듬기도 관심사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난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이재명(왼쪽부터),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유동규 구속에 “관리책임 저에게...살피고 살폈지만 부족”

첫 관리책임 인정·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가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민간 독

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2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순회경선에서도 압승, 사실상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을 예약한 상황에서 향후 본선에서의 중도층 공략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사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긴 했으나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공이익을 확보한 성과라

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 앞서 30분 넘게 자신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싸워 온 역사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나오는 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화악을 방명탄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식의 황당한 소리가 국민 의힘에서 나오고 있다"며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28.3%·윤석열 28.0%·홍준표 16.7%

KSOI 조사...이낙연 11.9%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초박빙의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8.3%, 윤 전 총장은 28.0%를 각각 기록했다. 이 지사는 한 주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0.9%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가 0.3%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6.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0%, 최재형 전 감사원장 1.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7%, 정의당 심상정 의원 1.3%, 민주당 박용진 의원 0.9% 순이었다.

범 진보권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31.9%, 이 전 대표 22.2%, 박 의원 7.1 등으로 나타났다. 범 보수권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 29.8%, 윤 전 총장 29.6%, 유 전 의원 11.2% 등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범 보수권 적합도에서 6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수사 예의주시하고 있다”...역전 떨어진 이낙연 완주 의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완주의지를 다졌다. '의원직 사퇴' 배수진까지 치고서 후반 레이스에 임해 온 이 전 대표는 3일 공개된 50만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결선행의 희망을 잃었지만, 25%포인트 격차로 '대패'했다.

이날로서 이 지사와의 누적 득표 격차는 전날(12만8000표)보다 7만6000표 더 늘어난 20만4000표가 되면서 이 전 대표의 결선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지며 배수의 진을 친데 이어 대장동 정국에서 '도덕성 우월론'을 전면에 내세워 결선행을 읊소했지만 결국 국뱃심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끝까지 경선 일정을 마칠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남은 경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표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함께 헤아리겠다"며 "일주일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는 홍영표·박광온 공동 선대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낙연은 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로, 대장동 의혹을 포함한 어떠한 부패나 비

리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결선에 진출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캠프 안팎에선 사실상 승부가 끝난 것이라는 무게를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대장동 정국이 여야 대결 구도로 전환, 유력 주자에 대한 표결집이 일어나면서 도덕성 카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황한 표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도 '중도 하차'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일정보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첫 순회경선 지역이었던 충청권 경선에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패한 직후 충격에 빠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퇴를 검토한 전력도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령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